경락경혈학회지 Vol.26, No.2, pp.165~175, 2009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東醫寶鑑 內傷門의 鍼灸法에 關한 小考

김영진, 이준무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Study on the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Internal Injury Section (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Young-Jin Kim, Joon-Moo Lee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rationale of point-selection on the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Internal Injury section(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Methods : First, we summarized the cause of each disease in the Internal Injury section(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Then we explained the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referring to the cause of disease,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other uses of each acupuncture points in the Donguibogam and other literature, character of each acupuncture points and specific acupuncture points etc.
Results and Conclusions : Total 9 acupuncture points were used in the Internal Injury section(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Most of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were explained by specific acupuncture points, character of each acupuncture points,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and flow of meridian pathways etc. Each acupuncture points has practical application of specific diseases.

Key words : Donguibogam,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Ⅰ. 序 論

침구치료는 한의사의 중요한 의료 행위 중 하나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발전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침구갑을경>에서 <침구대성>에 이르기까지 주된 문헌들의 기록을 보면 상당수가 주병증(主病證)과 주치혈(主治穴)의 나열로만 되어 있어, 현대 의가(醫家)들이 그 선혈(選穴)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 파악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의보감> 역시 각각의 장(章)마다 침구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주병증(主病證)과 주치혈(主治穴)의 나열로 구성이 되어있다. 물론 각 병증의 병기(病機)와 치료법이 <동의보감> 내에 설명이 되어있고, 그를 바탕으로 선혈(選穴) 이유를 유추할 수 있으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혈(選穴)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내상(內傷)의 원인은 내부의 장부(臟腑)가 손상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칠정(七情), 과음과식(過飮過食), 노권(勞倦), 방사과도(房事過度)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나 동의보감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음식상(飮食傷)

· 교신저자 : 이준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Tel. 033-730-0662, Fax. 033-730-0653, E-mail : jmlee@sangji.ac.kr
· 투고 : 2009/06/06 심사 : 2009/06/11 채택 : 2009/06/20

과 노권상(勞倦傷)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음식상(飮食傷)은 과식(過食)이 원인이 되거나 성질이 찬 음식 혹은 더운 음식을 많이 먹어 육부(六腑)를 손상시킨 경우 등이 있으며 증상으로는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면서 배와 가슴이 그득하여 음식 생각이 없어지고 트림과 신물이 올라오며 배가 아프거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飮食自培腸胃內傷, 水穀之寒熱感則害人六府, 傷食因多食 飮食不能運化 停於胸腹飽悶惡食不食 噯氣作酸 下泄臭泥 或腹痛吐瀉 重則發熱頭痛). 치법(治法)으로는 소도(消導)와 보익(補益)을 위주로 한다, 노권상(勞倦傷)은 신체가 마르고 기운이 쇠약해지며 곡기(穀氣)가 충분히 못하여 상초(上焦)와 하완(下脘)이 통하지 않아서 내열(內熱)이 발생하여 생기고(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而氣熱 熱氣熏胸中), 喜怒不節 등으로 기(氣)를 손상시키어 表熱自汗, 心煩不安하므로 치법(治法)으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화열(火熱)을 내리고 중초(中焦)의 기(氣)를 조절하여 주어야 한다.

한의학 치료는 약물요법, 침구요법과 도인안마(導引按摩)요법으로 대별할 수 있고 내상(內傷) 치료에서도 이 범주 내에서 치료하여야 하며 역시 消導와 補益溫中시켜야한다.

II. 연구방법

1. 각 조문은 대성문화사에서 1999년 출판된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본 논문에서 다룬 조문은 동의보감 잡병편 중에서 내상문(內傷門)에 언급된 침구법(鍼灸法)에 국한하였다.
3. 각 조문에 언급된 혈(穴)의 이명(異名) 및 조문에 대한 참고사항은 고찰 내【註釋】에 기록하였다.
3. 각 조문에 언급된 병증에 대한 병기(病機)와 치법(治法)은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외 관련 논문과 서적을 참조하였다.
4. 참조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의 소고(小考)를 고찰에 기록하였다.

III. 고 찰

1. 胃弱不思飮食 取三里三陰交

【註釋】 삼리(三里)는 족삼리(足三里)의 이명(異名)으로 下陵, 鬼邪라고도 한다[1].

위(胃)는 水穀氣血之海로서 주로 음식물을 소화시켜 아래로 내려 보내며 습한 것을 좋아하고 마른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主腐熟水穀 通降下行喜濕惡燥). 한습(寒濕)이나 조사(燥邪), 음식부절(飮食不節)로 인하여 위완(胃脘)이 차가운 듯 아프며(胃脘冷痛),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고픈 듯 안고픈 듯하고(心中嘈雜), 소화가 너무 잘되어 배가 빨리 고프며(消穀善飢), 변비가 생기거나 음식생각이 없고, 식체(食滯) 혹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2].

족삼리(足三里)는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합토혈(合土穴)로서 역상(逆上)된 기(氣)를 내려주고 위장(胃腸) 육부(六腑)의 병증을 다스리며 음식조절을 못하여 생긴 병증

을 치료한다(逆氣而泄 腸胃六腑病症 病在胃及 飮食不節得病者). 또한 족삼리(足三里)는 육부하합혈(六腑下合穴) 중 위부(胃腑)의 하합혈(下合穴)로서 "滎腧治外經 合治內腑"라 하여 육부병(六腑病)을 치료함을 알 수 있고 사총혈(四總穴) 중 두복(肚腹)을 주관하는 혈(穴)로서 健脾胃의 효능이 있으며 회양구침혈(回陽九針穴) 중 하나이다[1].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도 "胃合於三里"라 하여 족삼리(足三里)가 위병(胃病)의 주치혈(主治穴)임을 밝히고 있다[3].

김[4]은 정상인의 족삼리혈(足三里穴) 자침(刺鍼)이 위연동파(胃蠕動波)의 진폭을 증대시킨다고 하였고, 이[5]의 실험에 의하면 가토(家兎)의 족삼리혈(足三里穴)에 자침(刺鍼)한 결과, 평균 위운동량이 자침(刺鍼) 이전보다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허[6]는 고양이의 족삼리혈(足三里穴) 자침(刺鍼)과 Acetylcholine 및 Norepinephrine등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족삼리혈(足三里穴) 자침(刺鍼)이 위운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황[7]은 백서(白鼠)의 대퇴부 마취 및 신경차단, 좌골신경절단 등의 상태에서 족삼리(足三里)에 자침(刺鍼)하여 족삼리(足三里) 자침(刺鍼)이 위운동의 크기와 빈도수를 증가시킴을 신경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족삼리(足三里)는 消導補益하고 健脾溫中의 효능과 더불어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으므로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삼음교(三陰交)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穴)로서, 족삼음경(足三陰經)의 교회혈(交會穴)이며, 음양이총혈(陰陽二總穴)의 하나로 음(陰)을 주관하고, 健脾益氣, 溫中補虛의 효능이 있다[1]. 주로 소화기 질환과 부인과 질환 각슬통(脚膝痛)과 비뇨생식기 계통의 질환에 많이 응용하나,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類經圖翼>, <重樓玉鑰>, <鍼灸指南>, <鍼灸學簡編> 등에서는 "주로 비위(脾胃)가 허약하고 가슴과 배가 팽팽하고 음식생각이 없으며 몸이 무겁고 팔다리를 들기 힘들며 배에서 우는 소리가 나고 설사 및 음식이 내려가지 않을 때 사용한다(主脾胃虛弱, 心腹脹滿 不思飮食 脾痛身重, 四肢不擧,腹脹腸鳴, 溏泄食不下)"라고 하였으며,<鍼灸聚英>에 손설(飧泄)에 삼음교(三陰交)를 보(補)하라고 한 것은 溫中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健脾胃 목적으로서의 삼음교(三陰交)의 쓰임을 밝히고 있다[8].

비(脾)와 위(胃)는 모두 중초(中焦)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맥(經脈)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素問· 太陰陽明>에서는 "비(脾)와 위(胃)는 서로 막(膜)으로 연결되어 있다(脾與胃以膜相連耳)"라 하였고, <難經· 三十五難>에서는 "위(胃)는 비(脾)의 곳간이다(胃者脾之府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에 있어서도 비(脾)에 병이 있으면 위(胃)의 수납(受納)기능이 영향을 받고, 위(胃)에 병이 있으면 비(脾)의 운화(運化)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므로 치료에 있어서는 비(脾)와 위(胃)를 함께 다스려야 한다[2].

그러므로 胃弱不思飮食에 족삼리(足三里)와 더불어 비경(脾經)의 삼음교(三陰交)를

같이 선혈(選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三焦邪熱 不嗜食 取關元 <綱目>

【註釋】<의학강목(醫學綱目)>에는 “三焦邪熱 不嗜飮食 關元一分 沿皮向後三分 灸”라고 기재되어 있다[9].

관원(關元)의 이명(異名)에는 下紀, 次門, 丹田, 大中極 등이 있다.

삼초(三焦)는 육부(六腑)의 하나에 속하나, 다른 장부(臟腑)와 같이 일정한 형상과 고정된 부위가 없으면서 그 조직은 전신에 걸쳐서 분포되며 상초(上焦), 중초(中焦), 하초(下焦)로 구분된다. <素問 · 靈蘭秘典論>에서는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라 하여 삼초(三焦)의 수액대사 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難經 · 三十一難>에서는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라 하여 수곡정미(水穀精微)의 운화(運化)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10]. 이는 모든 기(氣)를 주관하고 수도(水道)를 소통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성[11]은 삼초(三焦)가 열(熱)작용을 하여, 기육(肌肉)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음식물의 소화 부숙(腐熟) 및 흡수를 조성함으로서 신체각부를 충실하게 하여 활력을 왕성하게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삼초(三焦)가 열사(熱邪)에 손상을 받으면, 상중하초(上中下焦)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수곡(水穀)을 받아들여 수곡정미(水穀精微)를 흡수하고 조박(糟粕)을 내려 보내지 못하게 되므로 불기식(不嗜食)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삼초지기(三焦之氣)의 소생처(所生處)1)인 관원(關元)을 선택하여 삼초(三焦)의 기기(氣機)를 조절한 것이라 여겨진다.

3. 全不思食 取然谷 出血立飢

【註釋】연곡(然谷)의 이명(異名)에는 龍淵, 然骨등이 있다.

연곡(然谷)은 음교맥(陰蹻脈)의 소생처(所生處)이며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형화혈(滎火穴)로 身熱心大熱 , 發熱心火病을 다스리는 혈(穴)로 여기에서 연곡(然谷)을 출혈시킨다 함은 곧 사암침법(舍岩鍼法)에서의 心寒格의 의미로, 心熱을 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열증(心熱證)과 관련하여 연곡(然谷)이 사용된 문헌은 <外臺秘要>에 “주로 음식생각이 없고 심장이 매달린 듯 하며, 슬프고 화를 잘 내며, 목안이 붓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가 날 잡아갈 것처럼 두려우며, 침을 많이 흘리고 숨이 차며 바늘로 찌르는 듯이 가슴이 아플 때 사용한다 (主不嗜食, 心如懸, 哀而善怒, 嗌內腫, 心惕惕恐如人將捕之, 多涎出, 喘, 少氣, 吸吸不足以息, 心痛如似刺, 厥心痛如錐刺其心, 心痛甚者脾心痛也).”라 한 것과 <醫心方>에 “주로 음식생각이 없고 열병으로 가슴이 답답하며 발이 차갑고 목구멍이 붓고 상체가 무거우나 하체는 가벼우며 여자가 임신이 되지 않고 남자는 정액이 새거나 황달이 된 경우에 사용한다(主不嗜食, 熱病煩心, 足寒清, 嗌內腫, 上重下輕, 女子不孕, 男子精溢黃疸)”고 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8].

이러한 심열(心熱)로 인한 음식생각이 없는 증상(全不思食)은 이동원(李東垣)의 비위

론(脾胃論) 중에서 음화(陰火)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동원(李東垣)의 <脾胃論・飮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 "만약 음식에 절도가 없고 寒溫이 적당치 않으면 비위(脾胃)가 상하게 된다. 또 喜怒憂恐은 원기(元氣)를 손상시키니 이미 비위(脾胃)의 기(氣)가 쇠(衰)한데다가 원기(元氣)마저 부족하면 心火가 獨盛하게 되는데, 心火란 陰火를 말하는 것으로 하초(下焦)에서 발생하고, 그 系는 心에 매어 있으나 心이 令을 主하지 않으므로 相火가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相火는 下焦包絡之火로 원기(元氣)의 적(賊)이니, 火와 원기(元氣)는 양립할 수 없어 하나가 승(勝)하면 하나는 부(負)하게 된다. 비위기허(脾胃氣虛)하면 신(腎)으로 하류(下流)하고 음화(陰火)가 그 토위(土位)를 승(乘)하므로 비증(脾證)이 발생하니, 氣高而喘, 身熱而煩하고, 그 맥(脈)은 홍대(洪大)하며 頭痛或渴不止하고, 그 피부는 풍한(風寒)을 감당할 수 없어 한열(寒熱)이 발생한다 (若飮食失節 寒溫不適 則脾胃乃傷. 喜努憂恐 損耗元氣 旣脾胃氣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於下焦 其系繫於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 不兩立 一勝則一負 脾胃氣虛 則下流於腎 陰火 得以乘其土位 故脾證始得 則氣高而喘 身熱而煩 其脈洪大 而頭痛 或渴不止. 其皮膚不任風寒 而生寒熱)."고 하였는데[12], 곧 음식과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거나(飮食起居不節) 정신적 스트레스가 화(火)로 변함(五志化火)으로 인하여 원기(元氣)가 손상됨으로써 심화항성(心火亢盛)하여 비토(脾土)를 승(乘)한 소치(所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곡(然谷)은 심열증(心熱證)과 관련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4. 飢不能食 飮食不下 取章門 期門 <東垣>

장문(章門)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혈(穴)로서, 비경(脾經)의 복모혈(腹募穴)이며,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과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교회혈(交會穴)이고, 건비화위(健脾和胃), 조중보허(調中補虛)의 효능이 있다[1].

기문(期門)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혈(穴)로서, 간경(肝經)의 복모혈(腹募穴)이며, 족궐음간(足厥陰肝), 족태음비(足太陰脾), 음유맥(陰維脈)의 교회혈(交會穴)이고, 소간건비익기(疏肝健脾益氣), 화위강역지구(和胃降逆止嘔)의 효능이 있다[1].

모혈(募穴)은 장부(臟腑)의 경기(經氣)가 흉복부에 결취되는 경혈로서, 오장육부에 질병이 있을 시에 모혈(募穴)부위에 이상반응이 출현하게 된다. 모혈(募穴)은 오장육부의 음양편성(陰陽偏盛)을 조정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진단과 동시에 치료의 요혈(要穴)이 된다[13].

'飢不能食 飮食不下'의 상황은 <동의보감・비상증(脾傷證)>에서 "비장(脾臟)은 간의(諫議)의 장부(丈夫)이다. 무릇 음식은 사람이 먹고자 하는 바이나, 비장(脾臟)이 소화시키지 못하면 감히 먹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간의(諫議)라 한 것이다(脾爲諫議大夫 蓋飮食人之大慾 心所欲食而 脾不能化則不敢

食 故名爲諫議也)."[14]라고 한 것을 참고로 할 때 위기(胃氣)는 실(實)하나 비장(脾臟)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침구갑을경>에 "음식에 손상을 입어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며 돌아누울 수가 없으며 눈이 아프고 구토가 나는 증상에 기문(期門)을 사용한다(傷食脇下滿 不能轉展反側 目晴而嘔 期門主之)."라 하여 식상(食傷)으로 肝脾不和하여 발생하는 증(證)에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모혈(募穴)인 기문(期門)을 자침(刺鍼)하라 한 것으로 보아 肝氣鬱結로 肝旺乘脾하여 비(脾)의 운화(運化)기능이 실조(失調)한 상황이라 여겨진다. 즉, 장문(章門)과 기문(期門)은 健脾和胃, 疏肝健脾益氣의 효능이 있으므로 肝氣鬱結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飮食不多 心腹膨脹 面色萎黃 世謂脾腎病 宜灸中脘 <資生>

【註釋】중완(中脘)의 이명(異名)에는 太倉, 胃脘, 中管, 胃募, 中胃, 胃中 등이 있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가슴과 배가 팽창하듯 부어오르고 얼굴이 누렇게 뜨는 증상은 지금의 Kwashiorkor나 Marasmus의 증상과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Kwashiorkor와 Marasmus는 영양결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주로 소아에게 발생한다. 두 병증의 차이가 있다면, Kwashiorkor는 칼로리는 충분히 섭취된 상태에서 일어난 단백질결핍이라 하겠고, Marasmus는 칼로리와 단백질이 모두 결핍되어 나타나는 병증이다. 특징은 영양결핍으로 인해 몸이 전체적으로 마르고 야위지만, 혈청 albumin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므로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을 초래하며, 내분비 계통에도 영향을 미쳐 insulin分泌가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15].

이는 본문에서 비신병(脾腎病)이라 한 것과 같이 비(脾)가 수곡(水穀)의 후천지기(後天之氣)를 받지 못하여 운화(運化)의 기능을 상실하여 신양(腎陽)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이른바 비신양허증(脾腎陽虛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腎)은 수(水)를 주관하고 비(脾)는 수액을 운화(運化)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비기(脾氣)가 허해져서 운화(運化)기능이 실조되어 수습(水濕)이 정축하여 신(腎)의 배설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종(水腫) 등과 같은 토불제수(土不制水)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16].

중완(中脘)은 위경(胃經)의 복모혈(腹募穴)이자 健脾和胃, 祛濕退黃, 健脾養血의 효능이 있으며1) <千金翼方>에 "주로 가슴과 배의 모든 병에 사용하며, 배에 단단하게 잡히거나 답답한 통증이 있을 경우, 우울한 생각에 기(氣)가 뭉친 경우, 찬 음식으로 곽란(霍亂)이 난 경우, 가슴이 아프고 음식소화가 되지 않으며 구토, 설사나 혹은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 뜸을 백장 뜬다 (主心腹諸病 堅滿煩痛 憂思結氣 寒冷霍亂 心痛吐下 飮食不消 腸鳴 泄痢 灸百壯)."라고 하였고 <침구갑을경>에 "배가 팽만하여 통하지 않고,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손상을 입

거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 중완을 쓴다 (腹脹不通 寒中傷飽 飮食不化 中脘主之).”라 한 것으로 보아 溫中시키어 기혈(氣血)을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완(中脘)을 선택함으로써 본 병증을 치료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6. 食多身瘦 名曰食晦 先取脾俞 後取章門太倉 <資生>

【註釋】 태창(太倉)은 중완(中脘)의 이명(異名)이다[1].

본 조문에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이 야위는 증상을 ‘식회(食晦)’라 하였는데, 이는 <동의보감· 소갈>에서 “대장(大腸)의 열(熱)이 위(胃)로 전달되어 잘 먹어도 마르는 증상을 식역(食亦)이라 한다(大腸移熱於胃 善食而瘦 又謂之食亦).”, “위(胃)의 열(熱)이 담(膽)으로 전달되어 식역(食亦)이 된다. 역(亦)은 바뀐다는 뜻으로 음식이 바뀌어 소화됨이 과하니 살과 피부가 생기지 않는다(胃移熱於膽 亦曰食亦 註曰 亦 易也. 飮食移易而過 不生肌膚也).”[14]라 한 것과 같이 식역증(食亦證)과 유사하다. 이동원(李東垣)의 <脾胃論·脾胃勝衰論>에서도 “잘 먹어도 마르는 것은 위(胃)의 화사(火邪)가 기분(氣分)에 숨어 들어간 것으로 비(脾)가 허(虛)하면 살이 마르니 식역(食亦)이라 한다 (有善食而瘦者 胃伏火邪於氣分 則能食, 脾虛則肌肉削 卽食亦也).”[12]라 하여 식역증(食亦證)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증상이 본 조문의 식회(食晦)와 유사하며, 두 조문으로 보아 공통된 원인은 위열(胃熱)과 비허(脾虛)라 여겨진다.

비수(脾兪)는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穴)로서 비(脾)의 배수혈(背兪穴)이고, 장문(章門)과 태창(太倉)은 복모혈(腹募穴)로서, 허증(虛證)에는 배수혈(背兪穴)을 많이 사용하고 실증(實證)에는 복모혈(腹募穴)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상[17] 先補脾虛 後瀉胃熱의 의미로 해석된다.

7. 飮食不下 隔塞不通 邪在胃脘 刺法在上脘 則抑而下之 在下脘 則散而去之 <靈樞>

<동의보감· 내상(內傷)>에 “숙식(宿食)이 상완부(上脘部)에 있으면 토법(吐法)을 사용한다(宿食在上腕 當吐之)”, “음식이 가슴에 얹혀서 상부(上部)에 맥(脈)이 있고, 하부(下部)에 맥(脈)이 없으면 토법(吐法)을 사용해야 한다. 토하지 않으면 죽는다 (食塞胸中 上部有脈 下部無脈 其人當吐 不吐者死).”[14]라고 하였는데 본 조문에서의 “在上腕則 抑而下之”는 이와 상반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脾胃論·脾胃虛不可妄用吐藥論>에 “어리석은 자가 장차 가슴과 목이 통하지 않고, 양쪽 겨드랑이 옆구리 쪽 배가 팽만한 경우 등의 胃虛不足으로 탁기(濁氣)가 위쪽에 있어 발생한 진창병(膜脹病)에 토법(吐法)을 쓰게 되면, 더욱 더 위허(胃虛)하게 되어 왕성해진 풍목(風木)이 반드시 이미 승(乘)한 위중(胃中)을 침범하게 될 것이다. <내경>에서는 ‘철락(鐵酪)으로써 진추지(鎭墜之)하라’고 하였으니, 어찌

도리어 토(吐)를 하여 그 풍목지사(風木之邪)를 돕겠는가. 토(吐)하지 않을 것을 토(吐)하게 하면 그 어그러진 차이가 천지(天地)의 현격(懸隔)함과 같으니 무릇 흉중질색(胸中窒塞)하고 번민부지(煩悶不止)한 경우에만 토(吐)함이 마땅하다 (昧者 將膈咽不通 上支兩脇腹脹 胃虛不足 乃濁氣在上 則生膜脹之病 吐之, 況胃虛 必怒風木已來乘凌胃中. <內經>以鐵酪 鎭墜之 豈可反吐 助其風木之邪 不主吐而吐 其差舛 如天地之懸隔 大抵胸中窒塞 煩悶不止者 宜吐之耳)."[12]라 하여 위기(胃氣)가 허(虛)한 상태에서 토법(吐法)을 사용하면 간목(肝木)이 더욱 왕성해져서 비위(脾胃)를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抑而下之"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8. 胃病飮食不下 取三里 <東垣>

족삼리(足三里)는 "胃弱不思飮食 取三里三陰交"조문에서 설명했듯이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합토혈(合土穴)이다. 특히 오수혈(五輸穴)의 합혈(合穴)은 <難經 · 六十八難>에 "逆氣而泄"을 주치(主治)한다고 하였듯이 증후에 있어서 육부(六腑)병증에 활용하고, <靈樞 · 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병이 위(胃)에 있거나 음식부절(飮食不節)하여 병이 든 자는 합혈(合穴)을 취하라고 하였다. 즉 합혈(合穴)은 주로 逆氣而泄, 腎水病, 腸胃 등 육부병증을 다스리고 특히 만성질환에 유효하며 <靈樞 · 邪氣臟腑病形編>에서는 "滎俞治外經 合治內腑"라 하여, 합혈(合穴)을 이용하여 부병(腑病)을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합혈(合穴)의 육부병 치료는 족삼양경(足三陽經)의 합혈(合穴)이 위주가 된다[17]. 그러므로 족삼리(足三里)가 기기승강(氣機升降)작용을 조절하여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증상을 내려가게 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 吐宿汁呑酸 取章門神光 <東垣>

【註釋】 신광(神光)은 일월(日月)의 이명(異名)이다[1].

탄산(呑酸)은 서양의학의 위산과다와 유사하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급· 만성위염과 소화불량증의 질환에서 볼 수 있다. 김[18]은 현대생활의 불안이나 경쟁 의식등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위(胃)의 운동 및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위벽 세포수의 증가 및 위 분비선의 증식이 오게 된다고 하였고, 탄산(呑酸)을 병기(病機)면에서 비기허형(脾氣虛型), 비음허형(脾陰虛型), 간기범위형(肝氣犯胃型), 위완식적형(胃脘食積型)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간기범위형(肝氣犯胃型)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정의 갈등으로 인한 肝氣鬱結에 의하여 위(胃)에 영향을 미치는 증후로서, 홍[19]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장애가 많다고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습열(濕熱)이 위(胃)의 입구에 있으면 음식이 위(胃)에 들어올 때 습열(濕熱)의 방해를 받아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므로 산(酸)이 발생한다. 이는 마치 곡식과 고기를 그릇 속에 오래 방치하면 산(酸)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濕熱在胃口上 飮食入胃 被濕熱鬱遏 其食不得傳化 故作酸

也. 如穀肉在器 久則易爲酸也).", "모든 구토증과 산(酸)은 열(熱)에 속한다(諸嘔吐酸皆屬於熱)."라고 하여 토산(吐酸)· 탄산(呑酸)의 원인을 열(熱)로 보았고, 특히 "산(酸)은 간목(肝木)의 맛으로 화(火)가 금(金)을 억제하므로 금(金)이 목(木)을 평정하지 못하는 고로 간목(肝木)이 왕성해져서 산(酸)이 된다. 그러므로 간(肝)에 열(熱)이 있으면 산(酸)이 올라온다 (酸者肝木之味也 由火盛制金 不能平木 則肝木自甚 故爲酸 是以肝熱則口酸也)."라 하여 간열(肝熱)이 토산(吐酸)·탄산(呑酸)의 주된 원인이라 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간기울결(肝氣鬱結)로 인하여 오지화화(五志化火)한 소치라 여겨진다. 이에 비경(脾經)의 복모혈(腹募穴)인 장문(章門)과 담경(膽經)의 복모혈(腹募穴)인 일월(日月)을 선택하여 疏肝健脾, 利膽和胃, 降逆止嘔의 효능1)을 꾀한 것이라 여겨진다.

Ⅳ. 결 론

1. 동의보감 내상(內傷)문에서 언급된 혈(穴)은 족삼리(足三里), 삼음교(三陰交), 관원(關元), 연곡(然谷), 장문(章門), 기문(期門), 비수(脾兪), 중완(中脘), 일월(日月) 등 총 9개 혈(穴)이다.
2. 족삼리(足三里)는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합토혈(合土穴)이고, 육부하합혈(六腑下合穴) 중 위부(胃腑)의 혈(穴)로서 건비위(健脾胃)의 효능과 더불어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으므로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에 응용할 수 있다.
3. 삼음교(三陰交)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穴)로서 근골격계와 비뇨생식기계 질환 뿐 아니라 족삼리(足三里)와 더불어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4. 관원(關元)은 임맥(任脈)의 혈(穴)이자 삼초지기(三焦之氣)의 소생처(所生處)로서 삼초기기(三焦氣機) 이상으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5. 연곡(然谷)은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형화혈(滎火穴)로서, 瀉心火의 효능이 있으며 심열증(心熱證)과 관련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6. 장문(章門)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혈(穴)이자 비경(脾經)의 복모혈(腹募穴)로서 健脾和胃, 調中補虛의 효능이 있어 肝氣鬱結과 관련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7. 기문(期門)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혈(穴)이자 간경(肝經)의 복모혈(腹募穴)로서 疏肝健脾益氣의 효능이 있어 肝氣鬱結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8. 비수(脾兪)는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穴)이자 비(脾)의 배수혈(背兪穴)로서 健脾和胃의 효능이 있어 脾胃虛弱으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9. 중완(中脘)은 임맥(任脈)의 혈(穴)이자 위경(胃經)의 복모혈(腹募穴)로서 健脾化濕의 효능이 있어 비(脾)의 운화실조(運化失調)로 인한 담음성(痰飮性)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10. 일월(日月)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혈(穴)이자 담경(膽經)의 복모혈(腹募穴)

로서 疏肝解鬱, 利膽和胃의 효능이 있어 肝氣鬱結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ult.

穴名	症狀	經脈	特徵 및 穴性
足三里	胃弱不思飮食 胃病飮食不下	足陽明胃經	合土穴 六腑下合穴 逆氣而泄, 健脾胃
三陰交	胃弱不思飮食	足太陰脾經	交會穴(足三陰經) 陰陽二總穴 健脾益氣, 溫中補虛
關元	三焦邪熱 不嗜食	任脈	三焦氣機調節
然谷	全不思食	足少陰腎經	滎火穴 瀉心火
章門	飢不能食 飮食不下 食多身瘦 (食晦) 吐宿汁呑酸	足厥陰肝經	腹募穴(脾經) 疏肝健脾益氣 和胃降逆止嘔
期門	飢不能食 飮食不下	足厥陰肝經	腹募穴(肝經) 疏肝健脾益氣
脾俞	食多身瘦 (食晦)	足太陽膀胱經	背俞穴 健脾和胃
中脘	飮食不多 心腹膨脹 面色萎黃 (脾腎病) 食多身瘦 (食晦)	任脈	腹募穴(胃經) 健脾化濕
日月	吐宿汁呑酸	足少陽膽經	腹募穴(膽經) 疏肝解鬱, 利膽和胃

參考文獻

1. 전국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各論. 4판. 원주 : 의방출판사. 2009 : 259-86, 346-62, 998-9, 1114-20, 1137-46, 1172-8.
2.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6판. 서울 : 성보사. 1996 : 201-45.
3.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1. 초판. 서울 : 여강출판사. 2000 : 152-223.
4. 金定濟. 最新鍼灸學. 서울 : 成輔社. 1979 : 264.
5. 李昊燮, 林鍾國. 足三里穴 鍼刺가 家兎의 胃運動에 미치는 影響. 대한한의학회지. 1981 ; 2(1) : 27-37.
6. 許汀旭, 金甲成, 安昌範, 朴鍾國. 足三里穴 刺鍼이 胃運動에 미치는 影響. 대한침구학회지. 1990 ; 7(1) : 203-13.
7. 黃祐準, 柳仁植. 足三里 鍼刺가 胃運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신경학적 관찰. 대한침구학회지. 2000 ; 17(1) : 119-27.
8. 王德深. 中國鍼灸穴位通鑒. 北京 : 靑島出版社. 1994 : 1556-63, 1624-31.
9. 樓英. 醫學綱目. 1판.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453.
10. 金完熙, 金廣中. 三焦에 대한 生理學的 考察. 東西醫學. 1985 ; 10(3) : 74-82.
11. 成樂箕. 原典上에 表出되고 있는 三焦의 生理作用에 대한 語源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논문집. 1996 ; 4(2) : 53-61.
12. 權寧斗. 東垣脾胃論譯釋. 1판. 서울 : 大星文化社. 1999 : 32, 87, 131-3.
13. 崔容泰 외. 鍼灸學(上). 1판. 서울 : 集文堂. 2000 : 196-7.
14. 許浚. 東醫寶鑑. 3판. 서울 : 大星文化社. 1999 : 144, 210, 335.
15. 金宗克, 高佻道. Kwashiorkor 1例. 대한내과학회지. 1973 ; 16(11) : 737-42.
16. 杜鎬京. 東醫腎系學. 서울 : 成輔社. 2003 : 42.
17. 전국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4판. 원주 :

의방출판사. 2009 : 284-6, 295.
18. 金仁相, 文九, 文錫哉. 呑酸에 關한 臨床的 硏究.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2 ; 13(2) : 77-83.
19. 홍석의, 김강산, 강병기. 정신적인 stress로 인하여 肝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소화기장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5 ; 15(2) : 48-59.